

투데이 칼럼

### 한국 인도태평양 정상회담

**최** 근 한국을 비롯 미국, 호주, 일본, 뉴질랜드 등이 정상 회담을 가져 관심을 모았다. 정상들은 한 목소리로 북한 무기 러시아 이전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모두 국제 공조를 통해 이를 저지해야 한다는 성명도 발표했다. 특히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지난 7월 11일 워싱턴에서 열린 인도태평양(인태) 파트너들과의 나토 정상회의 세션에 참석해 기대감을 키웠다.

한국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했다. 이 자리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 리처드 말스 호주 부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크리스토퍼 러스 뉴질랜드 총리 등 4개국 정상이 참석했다.

이날 미국과 인도태평양 4개국이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 실화에 대한 중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인도태평양 4개국은 별도의 정상회의에서 북한과 러시아에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북러 간 무기 거래를 규탄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크리스토퍼 러스 뉴질랜드 총리, 리처드 말스



정복규  
논설위원

호주 부총리와 잠시 만났다"고 밝혔다.

이어 "정상들은 한 지역의 도전이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하며 유럽-대서양과 인도태평양 안보 간 연결성 증대에 대해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상들은 인도태평양과 유럽-대서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는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불법 무기 이전을 강력히 규탄했다"고 전했다.

또한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적 협력 증강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이날 정상들은 러시아의 방위 산업 기지에 대한 중국의 지원에 대한 공동의 우려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나토의 인도태평양 파트너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보여준 용기 있는 지원을 환

영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국방에 대한 투자와 우크라이나 지원, 인도태평양에서의 강력한 리더십 등 나토의 인도태평양 파트너들이 세계 안보에 기여하는 바가 증대되는 데 대해서도 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크라이나 지원과 사이버 방위, 허위 정보가 야기하는 도전에 대한 정보 공유, 인공지능(AI) 등에 초점을 맞춘 나토와 인도태평양 간 네 가지 새로운 플래그십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정상들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인도태평양 4개국 외교장관들이 협력 증진을 위해 올해 말 만남을 갖는 데 대해서도 환영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한편 이날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4개국은 별도로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북한과

러시아를 규탄했다.

정상들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인도태평양과 유럽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러시아와 북한 간의 불법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에 대해 표되며,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반하는 러시아와 북한 간의 점증하는 군사 및 경제 협력 약속에 대해 엄중할 우려를 표명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러시아와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는 모든 활동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4개국 정상회담은 2022년과 2023년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됐다. 한편 이번 회의는 러스 뉴질랜드 총리가 주재했다.

정상들은 북러 군사 협력에 대한 규탄 외에도 나토와 인도태평양 지역 간 협력 진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이날 정상회담 중 말미엔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별도로 만나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4개국의 단합된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한국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번 정상 회담을 통해 한국 외교의 저변 확대를 기대한다.

### 사설

#### 전북 수출 1% 불과

전북 수출이 전국 수출의 1%에 그치는 참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21개월째 감소 추세를 이어가면서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사상 최고를 기록한 만큼 수출이 좋은 상황에서, 전북만 뒷걸음질 치고 있어 우려가 적지 않다.

요즘 우리나라 수출은 날개를 단 듯 비약하고 있다. 올 상반기 수출이 지난해보다 5.1% 증가한 3347억 달러로, 올해 사상 최고 수출을 달성할 것이란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반도체와 선박, 자동차 등이 수출을 이끌고 있다. 그런데 전북자치도의 상황은 완전히 판관이다.

올 상반기 전북의 수출액은 33억 8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8% 감소했다. 2022년 10월 이후 21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자동차가 13.2% 감소하는 등 건설·광산 기계, 동제품 등 전북의 주력 수출품이 지난해보다 40% 가량 감소했다.

특히 전기차 시장의 수요가 감소하고 중국시장의 내수 생산력 강화로 인한 정밀화학 원료 등 기존 전북의 주력 수출 품목들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역대급 수출 호황 속에 전북의 수출만 거꾸로 가면서 전북이 차지하는 비중은 1.01%로 줄었다.

반도체 대기업이 있는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수출 1위이고,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이 있는 울산광역시도 수출 2위, 최근 반도체 공장들이 잇따라 들어선 충남이 3위다.

우리나라 수출 1위는 반도체다. 전북의 반도체 품목의 수출은 1.7% 수준으로 비중이 미약해서 수출 확대 효과를 많이 못보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중공업 군산공장 폐쇄 등 도내 대기업의 철수나 생산 감소가 전북의 수출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최악 폭염 재연되나

요즘 무더위는 밤낮이 없다. 폭염이 전국을 뒤덮고 있다. 전국이 무더위 속에 살고 있다. 경기도 여주는 낮 기온이 40도까지 올랐고, 강릉에서는 열대야 최장 기록이 깨졌다.

서울 낮 기온은 35도까지 올랐다. 한강 변인데다 다리 밑이라 조금 바람이 부는데 여전히 33도다. 습도도 높아서 체감온도는 2~3도 더 높다. 서울 말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연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내려졌다. 주의보보다 경보가 훨씬 많았다. 경기도 여주는 한때 기온이 40도까지 치솟았다. 이대로라면 41도를 기록을 해서 역대 최악의 폭염으로 남은 2018년의 사태를 되풀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더위는 밤까지 이어진다. 밤 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이면 열대야로 본다. 강릉에선 이런 열대야가 지난달 19일부터 이어졌다. 이 지역에선 가장 긴 기록이다. 서울과 광주에서도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다.

열사병 같은 온열 질환으로 사망자도 계속 나오고 있다. 전남 광주에서는 한 80대 노인이 발일을 하다가 숨졌다. 119 구급대가 출동했는데, 체온이 42도에 달했다고 한다.

경북의 한 제련소에서도 노동자가 휴식을 취하던 중 숨졌다. 공식적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으로 올해 들어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8명이다. 그런데 이 수치는 갈수록 훨씬 높아졌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 이변은 이제 일상이 되어 가고 있다. 이를 이겨내는 길만이 우리가 할 일이다. 여름 무더위를 극복하는데 행정력을 모두 동원해야 할 때이다.

요즘 기온은 마치 요즘 인간의 인내력 한계를 시험하는 듯하다.

폭염과의 지루한 싸움이 하루속히 끝나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 엠폭스에 걸려 치료받는 콩고민주공화국 어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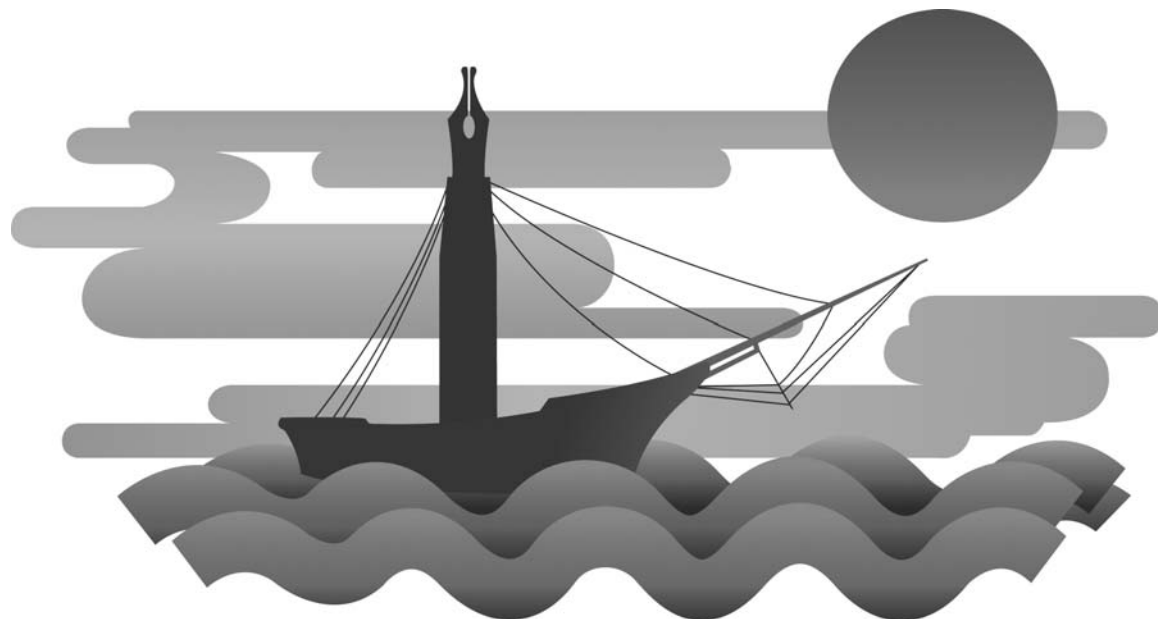


지난 19일(현지시간) 콩고민주공화국(DRC) 고마 인근 나라공고의 한 병원에서 엠폭스(MPOX·구 원숭이두창)에 걸린 어린이가 치료받고 있다. 전날 세계보건기구(WHO)는 DRC에서 발생한 엠폭스가 주변국으로 빠르게 확산하자 2년 만에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다.

#### 해리스 부통령과 공개 행보 나선 바이든 대통령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이 지난 15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 리프고에서 열린 의약품 가격 인하 정책 행사장에 도착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 이후 처음으로 공동 유세를 펼쳤다.



###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 전주매일